

경/영/전/략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통계를 넘어

중국국가통계국은 2013년 1분기 경제 성장에서 투자에 의한 부분이 2.3%인데 비해 민간소비에 의한 부분은 4.3%로 이제는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동력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는 중국의 민간소비가 GDP의 35% 수준이라는 공식통계는 금융, 의료, 주택 등에 대한 지출을 누락한 일부분만으로 작성되어 실제 약 46%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소비 의존도는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세계은행과 OECD는 중국의 민간소비를 GDP의 35% 기준으로 2030년이면 연간 10조달러 이상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46%라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은 공식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 민간소비 규모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산층·실버층의 급속한 확대,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 식품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김진완 수석연구원



[차이니즈월(Chinese Wall)]



관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 놓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 불필요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 정보교류로 인해 외부 고객(사)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다.

금/융/외/환

엔저와 한국 주식시장

아베노믹스의 영향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0엔 대에 근접하면서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일본이 4.8%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3.4% 감소했다. 국산과 일본기계의 가격차도 기존 10~20% 선에서 최근 5~10%까지 좁혀지며 일본으로의 수입선 전환도 우려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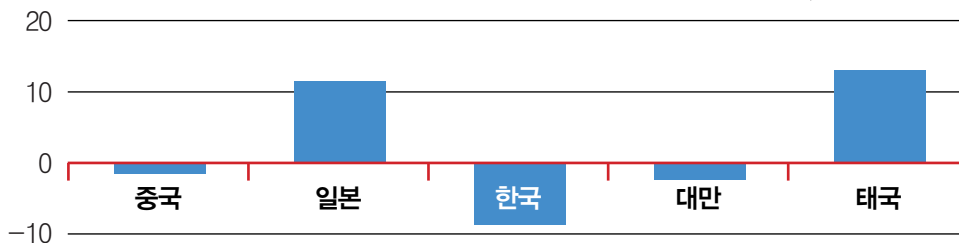
올해 KOSPI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8%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본을 포함한 MSCI 아시아퍼시픽 지수가 5%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도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수출업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엔저정책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16일 IMF에서 올해 전망치를 3.2% →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북핵 리스크를 우려하여 과매도하였던 헤지펀드의 환매수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매수 전략을 취할 좋은 시기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인 타이후이(Tai Hui)는 주가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기업실적 개선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2012년말 대비 주가 변동률 (달러기준)

(단위 : %, 기준일 : 4.10)



자료 : The Economist

■ 염지연 책임연구원

경/제/일/반

세계경제의 명과 암

세계경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세계경제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으나 4월 들어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는 다시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증가폭은 금년 1월과 2월에 월평균 20만 8천명이었으나 3월에는 시장 전망의 절반치 이하인 8만 8천명으로 축소되었고 제조업활동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했다.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도 7.7%로 시장 전망치 8.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 확대 전망

세계경제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재정지출 축소다.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와 부유층 소득세 감면 종료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② 중국의 신용위기다. 지방정부의 부채와 그림자금융의 확대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③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높은 하방리스크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IMF는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니다. ①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이다.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유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제조업의 경쟁력 부활에 기초한 투자와 소비 등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② 중국의 안정적 성장이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저소득층 지원 및 기업감세 정책 추진, 소비자물가 안정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하반기부터는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주 부소장



[S초등학교 글짓기 시험]

(문제) “()라면 ()겠다”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정답)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등등

(학생) (컵)라면 (맛있)겠다

● 금리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5	4/12	4/15	4/16	4/17
기준금리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CD(91일)	2.89	2.82	2.81	2.80	2.79	2.79	2.79	2.79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4	2.57	2.48	2.65	2.65	2.61	2.61
국고채(3년)	2.82	2.63	2.52	2.44	2.67	2.66	2.61	2.63
회사채(3년, AA-)	3.29	2.99	2.88	2.81	3.03	3.02	2.96	2.96
회사채(3년, BBB-)	8.80	8.58	8.49	8.41	8.62	8.61	8.58	8.57

● 주가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5	4/12	4/15	4/16	4/17
KOSPI	1,997.1	2,026.1	2,004.9	1,927.2	1,924.2	1,920.5	1,922.2	1,923.8
애플	13,104.1	14,054.5	14,578.5	14,565.3	14,865.1	14,599.2	14,756.8	14,618.6
니케이225	10,395.2	11,559.4	12,397.9	12,833.3	13,485.1	13,275.7	13,221.4	13,382.9
상하이종합	2,269.1	2,365.6	2,236.6	-	2,206.8	2,181.9	2,194.9	2,193.8

● 환율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5	4/12	4/15	4/16	4/17
원/달러	1,071.1	1,085.4	1,112.1	1,123.8	1,129.0	1,131.1	1,124.7	1,119.6
원/100엔	1,247.5	1,176.2	1,179.5	1,166.3	1,132.2	1,149.7	1,158.4	1,146.3
원/유로	1,416.3	1,425.8	1,425.2	1,452.9	1,480.2	1,482.0	1,468.0	1,476.0
원/위안	171.9	174.3	179.0	181.2	182.2	182.7	181.8	181.1

● 원자재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5	4/12	4/15	4/16	4/17
원유(WTI)(\$/배럴)	91.8	92.1	97.2	92.7	91.3	88.7	88.7	86.7
금(\$/온스)	1,687.9	1,577.7	1,594.8	1,575.4	1,501.0	1,360.6	1,386.8	1,382.2
구리(\$/톤)	7,915.0	7,828.0	7,582.5	7,376.0	7,510.0	7,125.5	7,219.0	7,067.0
알루미늄(\$/톤)	1,860.0	1,845.0	1,803.0	1,800.0	1,785.0	1,755.0	1,795.0	1,770.0